

8월 광주·전남 증시 '반도체·바이오' 쏠렸다

코스피 매수 1·2·3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유한양행 관련 산업 호황·암 관련 신약 호재 등 영향 상위권 올라

8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투자자는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를 활발하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핵심성장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 코스피 매수거래대금 1·2·3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유한양행이었다. 반도체 호황과 암 관련 신약 호재 등 영향으로 관련주 거래가 대세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매수거래대금 4·5위는 셀트리온·KODEX레버리지였다. 코스닥 매수거래대금 1·2·3위는 알

테오젠·랩지노믹스·HLB로 바이오주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주식은 암, 유전자 관련 신약 치료제 등을 개발 호재로 인해 투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5.45% (1조486억원) 증가했다. 지역 상장법인 중 코스피 분야에서 한국전력은 시총 9.87% (1조2천518억원), 한전KPS는 5.84% (1천35억원) 증가했다.

코스닥 분야에서 그린생명과학은 26.10% (101억원), EG 7.62% (48억원) 증가했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9.39% (-1천378억원), 다스코는 22.27% (-178억원) 감소했다. 강동씨엔엘은 27.31% (-368억원), 박셀바이오는 6.70% (-250억원) 줄어들었다. 전체 매수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21.57% (9천166억원), 매도거래대금 24.74% (1조517억원)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달 전체 시장은 월초 코스피가 미국 7월 실업률 상승 등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며 8% 이상 급락했으나, 이후 미국 7월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 등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낙폭이 축소됐다. 이후 월말 잦은 미팅 개최, 글로벌 대형 기술주 실적 기대감으로 관망세 속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며 2,674.31p 으로 마감했다. /임채만 기자

투데이경제



전문건설협 광주시회, 복지시설 후원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5일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인 영애원, 애일의 집, 분도와 안나개미꽃동산, 영광원, 월드비전 등 9개소에 총 2천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협회는 매년 사회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위문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 김장나눔 봉사활동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나눔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박병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은 "매년 지역의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LH 재능모아봉사단, 선예학교 베이킹 클래스 재능기부

LH광주전남지역본부부는 5일 "LH 재능모아봉사단이 이날 광주공립특수학교인 선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베이킹 클래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능모아 봉사단'은 임대주택 입주 주민이 LH 작은도서관을 통해 먼저 배운 지식과 재능을 기반으로 품앗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지난 5월 출범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고 있다. LH는 봉사단 인력구성, 사회복지기관 매칭, 체험활동 재료비 지원 등을 통해 LH 입주주민들이 사회에 품앗이 재능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LH재능모아봉사단은 선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공예체험에 이어 2학기 베이킹클래스로 학교 현장을 찾아가 제과제빵교육실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같이 하며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원희 선예학교 교장은 "1학기에 공예체험에 이어 2학기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쿠키 체험학습을 제공해 감사하다"면서 "향후에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LH재능모아 봉사단의 뜻깊은 나눔활동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LH재능모아봉사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추석자금 방출 추석을 앞두고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화폐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전남대병원에 임직원 헌혈증서 기증

광주은행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고병원 광주은행장과 정신전남대학교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 200매를 기증하며 지역사회 혈액 공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광주은행 본점 앞 헌혈버스에서 본점 임직원을 비롯해 본점 입사 직원들과 현장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캠페인 이후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기부했으며, 한 달간 모인 임직원 헌혈증서 200매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남대학교병원에 기증하며 원내 의료 취약 환자를 위해 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증에 동참한 한 임직원은 10년 이상 보관 중인 4장의 헌혈증을 의미 있게 써달라며 기부해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

남광주시장서 추석 장보기·금융 피해예방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남광주시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와 이용 촉진 캠페인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광주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등 7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은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 등을 구매하고 남광주시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나눠주면서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소상공인 금융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소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15% 할인된 금액으로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남광주시장에 이어 오는 9일에는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6개 기관 50여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장보기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앞서 장금이 결연행사 및 금융보안관 위촉 행사가 열렸다. '장금(場金)이 결연'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 맞춤형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는 광주은행과 남광주시장이 참여했다. 광주은행은 전통시장 상인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지원제도 및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전남중기청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원은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순천웃웃시장, 목포자유시장 등 장금이 결연 5개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전통시장 내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정은솔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첨향료